신호유화, 2003년 워크아웃 졸업

경영실적 예상보다 부진 … 11개는 2002년 조기졸업 예정

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(기업개선작업) 기업 가운데 영창악기, 신송식품, 맥슨텔레콤이 6월 워크아웃에서 조기 졸업할 전망이다.

또 벽산 벽산건설 신원 삼일공사 한창제지 대경특수강 동방 성창기업 등 8사는 2002년 하반기에 조기졸업이 추진된다.

반면, 신호유화와 신호제지는 경영실적이 좋지 못해 2003년 워크아웃에서 졸업, 기업 자율로 정상화를 모색하게 된다.

채권금융단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, 워크아웃기업 중 [자율추진기업]으로 분류된 19개 가운데 13개 기업에 대한 조기졸업 추진계획이 최근 확정됐다.

그러나 경영실적이 대단히 좋지 못한 경남기업 신우 세신 서울트래드클럽 고려산업 코코스 등 6사는 경영이 좀더 호전될 때까지 기업자율로 워크아웃 상태를 지속키로 했다.

금감원은 영창악기 등 13개는 경상이익을 내는 등 경영상태가 정상화되고 있어 조기졸업을 추진키로 채권단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.

워크아웃의 최종목표는 회사를 정상화한 뒤 기업분할, 사업부 매각 등의 방식으로 제3자에 매각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여건이 마련되면 채권단이 졸업시점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.

이에 따라 2002년 상반기 졸업추진 3사를 비롯해 하반기 졸업 예정인 기업들까지 조만간 사업부문별로 새 주인을 찾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.

워크아웃은 1998년 6월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편으로 도입됐고, 채권단은 채무재조정과 자구노력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조기졸업 제도를 적용해왔다.

[자율추진기업]은 워크아웃이 순조롭게 진행돼 성과를 낸 곳으로 워크아웃 프로그램(정상화 MOU)은 유지되나 채권단에서 파견된 경영관리단이 철수하거나 축소해 기업경영의 자율폭이 확대된 곳이다.

2001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발효되면서 워크아웃제도를 대체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06/11>